

#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Time Use of Urban Employed Husbands and their Wives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 교수 이 기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서 창 원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이 승 미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 Correspondence Univ.

Prof.: Oi Sook Kim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Chang Won Seo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Seung Mie Lee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분석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1) the real life of urban employed husbands and their wives (2) the balance between labor force reproduction and the labor force consumption (3) and the share of family responsibility by analysis patterns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of their time use. Data for 227 couples were gathered fro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 (1) Because of Husbands' long labor time and employed wives' roleoverload, their social-cultural time is too short, which means the pattern of their time use are very unbalanced type.
- (2) Regardless of wives' employment status, husbands' housework time is too short, which means that family responsibility is scarcely shared.

## 1. 문제의 제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며,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므로 인간생활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각 개인이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생활내용과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 특히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물질이 풍요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의 희소성이 증가됨으로써 인적자원으로서의 시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학을 위시한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신제하에 시간의 액면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외부의 일상생활의 "생산적 교환"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은 비시장노동시간에 화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인 GNP의 추정치를 보다 완벽하게 산출하고자 한다.

사회학자들은 시간의 영역을 계량경제학적인 모델의 측면을 넘어 확대하여 시간사용자료를 사회지표에 통합하고자 한다. 그들은 여가시간의 가용성, 여가시간의 배분, 일시적인 인간상호작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시간을 해석하여 사회 변화의 한 지표, 또는 생활양식의 척도로 간주하며, 이러한 연구경향의 결과로 '나국적간의 시간사용연구'(Szalai A., 1973), '미국인의 시간사용-일상행동의 사회심리적 분석'(Robinson J.P., 197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정학, 특히 가정관리학에서는 시간이 자유

재량의 여지가 큰 관리영역이라는 점, 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생활시간의 대부분이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시간을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미국에서 1960년대까지의 시간연구는 대체로 실태를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조사방법이나 분석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Becker 등 미시경제학자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경제학적 모델을 토대로 한 시간배분에 관한 연구, 시간에 대한 화폐가치의 평가 등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간에 대한 영향요인의 분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1950년 이후 도시 근로자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연구가 수행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역시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1970년대 들어와서 인접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방법론에서 많은 과학화가 진전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표집, 조사, 분석방법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가정학의 독자적인 관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의 균형, 남녀평등의 실현, 가정생활주기의 관점이 강조되고 상시노동과 가정생활, 자녀와의 공유시간, 전형적인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행동의 분석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8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초기에는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의 실태조사나 가사작업 간소화를 위한 실험연구에 치중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연구주제가 세분되

고 연구방법이 정교화되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외숙(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동안 이러한 연구들에 관한 문제점의 논의없이 개별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경험적 연구들의 축적이 이론적 발전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조사대상자를 주로 주부에게 국한한 점, 표집에 있어서 대표성의 문제, 시간사용의 측정방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간측정방법으로는 시간일지법이 유일하게 타당성이 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이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편차평방법, 로그를 취한 선형모형, 회귀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시간배분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가정관리학적인 독자적 관점을 명백하게 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한 시간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부부로 확대하고 시간일지법을 사용하여 근로자가정에 있어서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취업주부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시간배분의 균형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취업주부가정과 전업주부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주부, 전업주부, 그리고 각각의 남편 등 4집단의 생활시간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관리학적 관점을 중시하여 가정생활의 기능인 노동력재생산이 노동력소비와의 관련에서 어떻게 균형있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남녀평등이 시간배분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시간의 의의와 분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자원이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산출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생활시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밖에도 노동방식, 생활수단의

양과 질, 사회적 공동소비수단의 양과 질, 가족생활주기, 가족원의 수와 연령, 지역과 종교(伊藤七ツ, 1983)등의 객관적 특성과 가치, 태도, 동기, 선호 등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시간구조는 그 개인과 가족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생활의 질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생활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일상생활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 가족 및 사회전체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한편 생활시간의 분류는 이것이 생활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였으며, 생활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그리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인가하는 점에서 생활시간연구에 기본이 되므로 선행연구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인의 일상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Szalai등(1973)은 생활내용을 96개 활동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7개 범주로 축소하고, 이를 다시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의무,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시간, 직업과 관련없는 교통시간, 학업과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등의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Robinson(1976)은 생활시간을 크게 의무적 활동시간과 자유시간으로 나누어, 노동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 교통시간 등을 의무적 활동시간영역에 포함시키고, 조직활동과 교육, 대중매체이용, 사회적 오락시간 등을 자유시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Hill(1985)은 성인의 시간사용의 범주를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여, 시장노동, 가사 및 옥외노동, 자녀돌보기, 서비스 및 구매, 개인적 돌보기, 교육, 조직활동, 사회적 오락, 능동적 여가, 수동적 여가 등으로 나누었다.

한편 일본 학자중 藤本武(1983)는 노동시간과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양분하는 방법을 택해 생활시간을 크게 수입생활시간과 소비생활시간으로 나누고, 소비생활시간에 생리적 생활시간과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伊藤七ツ 등(1989)은 藤本武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생활시간을 수입노동시간과 소비

생활시간으로 나누어, 전자는 사회적 노동시간으로, 후자는 가정생활시간으로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시간으로 보았다. 그러나 藤本武과 다른 점은 가사적 생활시간을 소비생활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노동시간으로 파악하여 수입노동시간과 합하여 전노동시간으로 보았으며, 소비생활시간에 포함시킨 생리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중 가사적 생활시간과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의 세부영역을 더욱 자세히 열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는 국민생활시간을 크게 4가지 활동영역—생활필수, 노동, 이동, 여가 행동—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13가지 세부영역—수면, 식사, 신변잡일, 일, 학업, 가사, 교제, 휴양, 레저활동, 이동, 신문 및 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의 분류는 국민의 TV시청시간과 시간대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생활시간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가정학 분야에서는 생활시간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으나, 생활시간의 분류에 있어 연구의 대상에 따라 연구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안영희, 1977; 한경미, 1987; 임정민·임혜경, 1992)에서는 수입노동시간을 제외하여 생리적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또는 여가시간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임정민(1981)의 연구에서만 가사노동시간을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취업주부나 가족원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경우에는 수입노동시간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가사노동시간과 합하여 노동시간으로 구분한 연구(강진주 외, 1968; 상정기, 1975; 김외숙 1988, 재인용)와 이를 구분하여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한 연구(이정수, 1984; 한경미, 1991; 조희금, 1993)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 뿐만 아니라 취업주부, 그리고 각각의 남편의 생활시간 모두를 파악하고자 하므로, 위 연구들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생활시간을 분류하고자 한다.

- ① 생리적 시간—수면, 식사, 몸단장, 휴식, 의료
- ② 수입노동시간—근무, 집에서 일함, 내직적 노동, 통근
- ③ 가사노동시간—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시장보기, 가정관리, 자녀의 신체적 돌보기,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 가족원돌보기
- ④ 사회문화적 시간—교양·연수, 독서, 신문, TV·라디오, 취미, 운동·산책, 오락, 교제, 사회활동, 종교활동, 기타

## 2. 생활시간구조 분석의 가정관리학적 관점

생활시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학, 사회학, 노동정책 등 여러영역에서 접근·분석하고 있다. 가정학의 시간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인접학문영역에서의 연구성과나 방법을 받아들여 그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관리학적인 독자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생활시간 연구에 있어 가정관리학적인 독자성은 노동력의 소비와 노동력재생산의 균형문제,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른 부인과 남편의 시간구조상의 평등문제에 있다고 하겠다.

### 1) 노동력 재생산과 노동력의 소비

가정은 가족원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기본 단위이므로, 가정생활에 배분된 시간은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시간에 의해 소비된 노동력이 가정생활 시간을 통해 균형있게 재생산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藤本武(1983)는 고용노동자의 1일 생활시간을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통제하에 자본의 한 기능으로서 일정한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지않는 시간, 즉 소비한 노동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크게 양분하고, 후자를 생리적 시간, 가사적 생활시간, 사

회문화적 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노동시간은 가족의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적 노동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노동력의 소비시간이며,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가정생활시간이 개별 가족원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것과는 달리 수입노동시간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족과 개인의 생활시간을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노동력 재생산시간은 가정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가족원의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시간으로서, 이는 다시 생리적 생활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가사적 생활시간으로 구분된다.

생리적 생활시간은 노동력의 육체적 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이며, 사회문화적 생활시간은 노동력의 정신적 능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질의 노동력이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생리적 생활시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생활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사적 생활시간은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제 조건을 마련해주는 시간으로,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의 가사노동시간과 다음 세대 노동력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런 가사적 생활시간은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시간이며, 그런 의미에서 노동력 재생산시간이다. 반면, 가사적 생활시간은 가사나 육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소비시간이며, 엄연한 노동시간인 것이다.

그러나 상품적 가치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은 사회적 노동과는 달리 사적 노동이며, 상품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합목적적인 가치를 지닌 유용노동이라는 점에

서, 그리고 생리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재생산을 위한 노동력지출로서 노동의 한 형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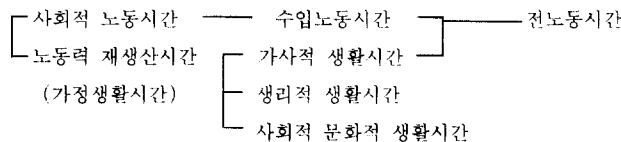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노동으로서 수입노동시간과 사적 노동시간으로서 가사적 생활시간을 합하여 '전노동시간'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특히 가정관리학적 관점으로 생활시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전노동시간'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수입노동시간은 없고 사적인 가사적 생활시간만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다른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노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수입노동시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집안에서의 가사노동시간까지 포함할 때 이중부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적 생활시간을 노동력 재생산시간으로 볼과 동시에 노동력 소비시간으로 보는 것은 노동력재생산의 양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의 균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2) 남녀평등과 생활시간구조

남녀평등이란 남녀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자기 충족과 사회전체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평등한 권리, 기회,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남녀평등의 과제가 가정생활의 장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평등으로 파악되며, 제 능력의 발전의 권리와 기회의 보장이라는 평등이념은 가정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력재생산의 권리와 기회가 얼마나 평등하게 주어지는가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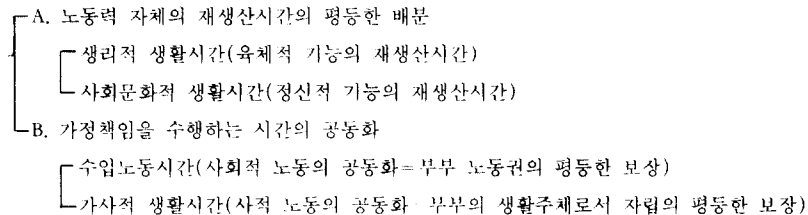


<그림 1> 노동력재생산의 관점에서 본 생활시간분류

도 부부간에 가정책임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는 가정책임은 매일의 그리고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경제적, 가사적, 양육 및 교육적 생활행동 전반에 걸쳐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에서 남녀평등의 실태는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시간에서의 부부간 평등은 노동력 자체의 재생산시간에서 뿐만아니라, 가정책임을 수행하는 시간에서도 평등화, 공동화가 이루어 질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가정책임을 수행하는 시간에 있어서 공동화는 부부간의 역할분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노동시간과 가사적 생활시간에 있어서 공동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 즉 부부의 사회적 노동과 사적 노동에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부 모두가 경제적인 자립 뿐만 아니라 생활주체로서도 자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를 통해 가능하며 생활주체로서의 자립은 가사노동의 숙련을 통해 가능하므로 사회적 노동과 사적 노동의 균형있는 수행은 성별과 관계없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책임을 공동화는 단순히 남녀평등의 요건이 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전면적 발달을 돕고 노동력의 풍요로운 재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림 2> 생활시간에서의 부부간 평등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생활시간구조 분석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는 어떠한가?
- 2)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본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 3)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본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배분은 어떠한가?

#### 2.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편이 직업이 있는 유자녀부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연구대상을 유자녀부부로 한정된 것은 본 연구가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자녀의 유무가 전반적인 생활시간 뿐만 아니라 특히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하루 24시간을 10분단위로 나누어 구성한 시간일지표(time diary)를 이용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사용을 조사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2년 10월에 실시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를 정교화하였으며 본 조사는 생활시간에 대한 계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조사는 1992년 11월 둘째, 셋째주에 걸쳐 2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1993년 4월의 둘째, 셋째주에 걸쳐 역시 20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00쌍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하였다. 조사자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학생들로서 이들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지와 시간일지표 기입방법에 대해 다양한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한 후,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사용을 조사대상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했을 경우에는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330쌍의 질문지와 시간일지표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경우와 무자녀부부를 제외한 227쌍의 자료만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의 다양한 분석을 위해 회수된 시간일지표를 검토하여 98가지의 활동으로 분류한 후 10분 단위로 코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을 크게 생리적 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30가지의 활동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포와 평균을 통해 분석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1.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취업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의 남편, 전업주부의 남편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 1) 생리적 시간

##### (1) 평일

생활필수적인 성격을 갖는 생리적 시간은 평일의 경우 전업주부의 남편이 10시간 5분, 전업주부가 9시간 50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9시간 48분, 취업주부가 9시간 53분으로 부인의 취업여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육체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20세 이상 성인의 평일 생리적 시간이 10시간 42분으로 나타난 국민생활시간조사(한국방송공사, 1991)결과에 비해 훨씬 짧은 편이다. 한편 생리적 시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리적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면시간은 전업주부의 남편이 다른 세집단에 비해 20분정도 긴 편이기는 하지만 네집단 모두 대략 7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사시간으로 1시간 30분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의 생리적 시간은 전업주부가정의 부부 모두 평일보다 15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주부가정의 부부는 평일보다 5분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의 부부보다 그 증가폭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부인의 생리적 시간이 남편보다 짧았으며, 특히 전업주부의 생리적 시간이 다른 세집단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요일의 생리적 시간은 평일·토요일보다 1시간 내지 2시간 가량 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분	전업주부 빈도(%)	취업주부 빈도(%)	변인	구분	전업주부 빈도(%)	취업주부 빈도(%)
남편의 연령	29세 이하	7 ( 6 )	10 ( 9 )	부인의 연령	29세 이하	20 ( 19 )	19 ( 19 )
	30 - 39세	47 ( 42 )	63 ( 57 )		30 - 39세	44 ( 41 )	58 ( 59 )
	40 - 49세	25 ( 22 )	25 ( 23 )		40 - 49세	25 ( 23 )	19 ( 19 )
	50세 이상	34 ( 30 )	12 ( 11 )		50세 이상	18 ( 17 )	3 ( 3 )
	계	113 (100)	110 (100)		계	107 (100)	99 (100)
	평균	42세	38세		평균	38세	35세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26 ( 23 )	43 (39)	부인의 학력	고졸이하	51 (48)	39 ( 39 )
	초급대졸	8 ( 7 )	14 (12)		초급대졸	8 ( 7 )	12 ( 12 )
	대졸이상	78 ( 70 )	54 (49)		대졸이상	48 (45)	50 ( 49 )
	계	112 (100)	111 (100)		계	107 (100)	101 (100)
남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9 ( 18 )	18 (16)	부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5 ( 15 )
	사무기술직	62 ( 58 )	65 (60)		사무기술직		42 ( 42 )
	자영업자	18 ( 17 )	17 (15)		자영업자		20 ( 20 )
	생산서비스직	4 ( 4 )	5 ( 5 )		생산서비스직		10 ( 10 )
	기타	3 ( 3 )	4 ( 4 )		기타		13 ( 13 )
	계	106 (100)	109 (100)		계		109 (100)
가 계 소 득	100만원 이하	28 ( 29 )	8 ( 8 )	가 족 형 태	핵가족	89 ( 83 )	77 ( 76 )
	101 - 150만원	37 ( 38 )	15 ( 15 )		확대가족	18 ( 17 )	24 ( 24 )
	151 - 200만원	10 ( 10 )	21 ( 22 )		계	107 (100)	101 (100)
	201 - 250만원	8 ( 8 )	22 ( 23 )				
	251만원 이상	15 ( 15 )	35 ( 32 )				
	계	98 (100)	97 (100)				
	평균	155만원	237만원				

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수면시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이는 많은 선행연구결과(한경미, 1989; 伊藤セツ 등, 1989; 임정민·임혜경, 1992; 조희금, 1993)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평소의 피곤함을 일요일의 긴 수면으로 다소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수입노동시간

### (1)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경우 취업주부의 남편이 11시간 15분, 전업주부의 남편이 10시간 33분을 수입노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수입노동시간이 매우 긴 것은 근무시간 자체가 취업주부의 남편 경우 하루 평균 9시간 18분, 전업주부의 남편 경우 8시간 52분으로 길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농업직종에 있어서 1989년 주당 노동시간이 54.5시간으로 나타난 경제기획원 조사결과(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그리고 삼성생명에서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평일 10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으며, 응답자의 81%가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을 넘는다고 응답한 결과(동아일보, 93년 9월9일자)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주부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남편보다



〈표 2〉 도시 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생활내용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취업주부		취업주부		취업주부		취업주부		취업주부		취업주부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생리적인 시간	7.35	7.13	7.15	7.19	7.45	7.27	7.17	7.14	8.56	8.21	9.07	8.48
수식	1.33	1.23	1.36	1.25	1.30	1.27	1.30	1.23	1.26	1.28	1.27	1.27
단	.46	.50	.45	.56	.50	.49	.52	1.02	1.02	.50	.54	.56
몸의 휴	.11	.22	.12	.12	.15	.23	.12	.17	.23	.21	.22	.20
소	10.05	9.50	9.48	9.53	10.20	10.08	9.52	9.58	11.48	11.00	11.50	11.30
근무	8.52	.00	9.18	6.47	5.55	.00	6.09	4.21	.55	.00	.41	.33
잠에서 일함	.06	.00	.04	.27	.05	.00	.03	.17	.11	.00	.14	.02
내직적 노동	.00	.00	.02	.01	.00	.00	.03	.00	.05	.00	.03	.01
통	1.36	.00	1.52	1.05	1.32	.00	1.40	.54	1.0	.00	.09	.04
소	10.33	.00	11.15	8.20	7.32	.00	7.55	5.32	1.22	.00	1.07	.41
식사준비	.02	1.57	.01	1.02	.02	1.47	.04	1.05	.07	1.41	.06	1.21
저	.00	.37	.01	.18	.01	.39	.01	.21	.02	.36	.02	.31
거	.05	1.09	.06	.29	.08	1.11	.05	.33	.26	.47	.31	.50
소	.00	.47	.00	.15	.01	.42	.02	.25	.03	.28	.05	.39
탁	.01	.58	.01	.14	.12	.55	.10	.44	.27	.44	.33	.44
시	.05	1.01	.03	.17	.06	.51	.10	.30	.09	.37	.12	.31
장	.07	1.21	.08	.39	.12	1.00	.24	.43	.18	.34	.41	.38
보	.00	.15	.00	.09	.00	.19	.02	.09	.01	.04	.00	.02
기	.01	.15	.01	.06	.01	.14	.01	.05	.05	.10	.01	.05
가	.20	8.20	.21	3.28	.43	7.38	.58	4.35	1.37	5.41	2.10	5.21
정	.53	8.20	11.36	11.48	8.15	7.38	8.53	10.07	3.01	5.41	3.21	6.02
관	.14	.15	.11	.14	.11	.09	.08	.09	.07	.02	.06	.07
리	.13	.30	.16	.11	.21	.17	.16	.13	.24	.11	.33	.13
사	.14	.13	.14	.05	.19	.13	.12	.09	.21	.08	.18	.04
간	1.16	2.13	1.01	1.00	2.12	2.43	1.55	1.41	3.28	2.41	3.05	2.16
전	.17	.24	.11	.20	.23	.28	.24	.23	.29	.32	.42	.31
체	.04	.07	.03	.02	.03	.07	.04	.04	.04	.02	.09	.08
노	.17	.24	.12	.07	.31	.33	.32	.12	1.46	.54	.56	.29
동	.02	.15	.05	.01	.02	.03	.20	.04	1.12	.13	1.14	.06
시	.15	1.15	.19	.12	1.09	1.20	1.20	.50	.00	1.13	1.48	1.15
간	.01	.02	.00	.01	.00	.00	.00	.00	.00	.00	.04	.02
사	.03	.23	.03	.08	.05	.17	.04	.08	.56	1.21	.55	1.17
회	.02	.03	.01	.02	.00	.02	.00	.01	.01	.03	.02	.01
화	3.01	5.50	2.37	2.19	5.25	6.14	5.15	3.54	9.13	7.19	8.52	6.29
적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시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간	3.01	5.50	2.37	2.19	5.25	6.14	5.15	3.54	9.13	7.19	8.52	6.29
합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단위 : 시간분

짧은 8시간 20분으로 취업주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의 74%정도이고 하루의 35%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이 10시간 22분으로 나타난 조희금(1993)의 연구결과보다 2시간정도 짧은 편이며, 전 직종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경미(1991)의 연구결과인 직업노동시간 9시간 59분보다 1시간 30분이상 짧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조사대상자로 시간제 취업주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근무시간에 차이가 남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분류의 세부항목에서의 차이 -- 조희금(1993)의 연구에서는 근무 중의 식사시간을 수입노동시간에 포함시킴 --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입노동시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으로 6시간 47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통근시간은 남편보다 다소 적은 1시간 5분으로 나타났다.

### (2)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의 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편 모두 평일의 70%정도나 되며, 취업주부의 경우는 평일의 66%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토요일의 수입노동시간 역시 상당히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휴일인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경우 -- 전업주부 남편의 16%, 취업주부 남편의 13%, 취업주부의 13% -- 와 일거리를 집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업주부의 남편이 1시간 22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1시간 7분, 취업주부가 41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사노동시간

### (1) 평일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경우 전업주부가 8시간 20분, 취업주부가 3시간 28분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5시간 정도로 매우 큰데 반해, 남편의 경우에는 전업주부의 남편이 20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21분으로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그 절대량이 있어서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남편의 58%, 취업주부 남편의 51%가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남

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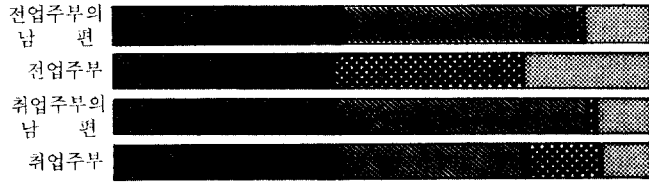
한편 가사노동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식사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와 신체적 돌보기, 청소에 1시간 이상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시장보기와 세탁에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데 반해, 취업주부는 가족원과 자신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매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식사준비에 1시간 정도를, 그리고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에 39분정도를 소비할 뿐 그 외의 영역에는 30분에 훨씬 못미치는 적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그 절대량이 작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소비시간도 매우 작지만 그 중에서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 (2) 토요일, 일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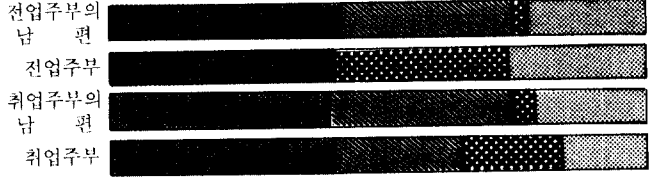
번지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의 경우 전업주부가 7시간 38분, 취업주부가 5시간 54분으로 나타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2시간 정도로 평일보다 줄었고, 일요일에는 전업주부가 5시간 41분, 취업주부가 5시간 21분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반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반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가사노동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가 줄어든 수입노동시간 대신 가사노동에 자신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평일의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을 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3시간 4분에서 일요일에는 5시간 28분으로 늘어난 선행연구(조희금, 1993), 일본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평일 3시간 32분, 토요일 5시간 28분, 일요일 6시간 38분으로 나타난 연구결과(伊藤セツ 등, 1989)와 일치하는 것이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의 대조적인 증감현상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식사준비와 설거지, 가정관리 영역을 제외한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평일보다 일요일에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장 시간이 많이 늘어난 영역은 시장보기 -- 평일의 14분에서 토요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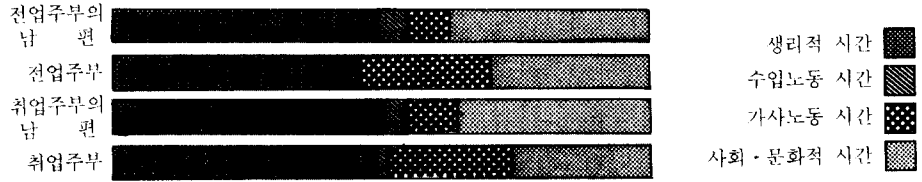
1) 평일의 경우



2) 토요일의 경우



3) 일요일의 경우



〈그림 3〉 전업주부, 전업주부의 남편, 취업주부, 취업주부의 남편의 생활시간 구조.

요일에는 44분으로 증가—이며, 자녀의 신체적 돌보는 평일에 비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고,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영역은 평일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의 경우 전업주부의 남편이 43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58분으로 나타났으며, 일요일에는 전업주부의 남편이 1시간 38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2시간 12분으로 나타나 평일에 비해 토·일요일로 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주부의 남편이 전업주부의 남편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요일에는 평일보다 시장보기와 자녀의 비신체적 돌보기시간이 증가하였

고, 일요일에는 이와 더불어 청소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총량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영역 중에서 고정적 영역 할분담의 뿌리가 강한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취업주부의 부부가 전업주부의 부부보다 조금 더 가정책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문화적 시간

(1) 평일

평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남편의 경우 전업주부의 남편이 3시간 1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2시간 37분으로 하루의 11-1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내용에 있어서도 TV와 라디오에 소비

되는 시간이 사회문화적 시간의 절반정도를 차지할 뿐 그 내용이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업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2시간 19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TV와 라디오에 한시간 가장, 가족단란에 20분정도를 소비할 뿐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빈약하였다. 이에 비해 전업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5시간 50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뿐만 아니라 교제로 1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으며, 독서, 가족단란, 운동·산책, 종교활동에도 20분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다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2) 토요일, 일요일

주말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살펴보면 토요일의 경우 평일보다 길지만 평일과 마찬가지로 전업주부가 6시간 14분으로 가장 길고 취업주부가 3시간 54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전업주부의 남편이 5시간 25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5시간 15분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네 집단 모두 사회문화적 시간이 증가하였고, 특히 남편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더욱 더 길어져서 전업주부의 남편이 9시간 13분, 취업주부의 남편이 8시간 52분으로 평일보다 6시간 이상, 토요일보다 3시간 반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부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의 경우 7시간 19분, 취업주부의 경우 6시간 29분으로 나타나 남편만큼 사회문화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일과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네 집단 모두 사회문화적 시간의 약 1/3 이상을 TV시청 및 라디오청취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여가생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지배력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일보다 토요일에 사회문화적 시간이 증가한 영역은 TV시청·라디오청취 외에 교제, 운동 및 산책이었으며, 일요일에는 이와 함께 종교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노동력 재생산과 노동력 소비의 균형

사회적 노동을 통한 노동력의 소비와 그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생활시간을 사회적 노동시간과 가정생활시간으로 크게 구분하고, 노동력 재생산시간인 가정생활시간을 생리적 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제조간을 마련하는 시간인 가사노동시간으로 세분하는 것은 근로자가정을 노동력재생산의 단위로 파악하여 노동력 재생산의 양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효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의 시간을 배분하여 생활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사노동시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노동시간이므로 가정내의 노동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에 있어 노동력 소비와 노동력 재생산간의 균형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육체적·정신적 재생산을 위한 생리적시간과 사회문화적 시간을 노동력 재생산시간으로, 그리고 사회적 노동시간인 수입노동시간과 가정내의 노동시간인 가사노동시간 모두를 노동력 소비시간으로, 즉 전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입각하여 남편과 부인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노동시간에 하루 평균 8시간 20분을 소비하는데 반해 취업주부는 11시간 48분, 취업주부의 남편은 11시간 36분, 전업주부의 남편은 그보다 적은 10시간 5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업주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은 거의 11시간 이상을 노동력 소비에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력 재생산시간으로는 먼저 네 집단 모두 10시간 내외를 생리적 시간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시간은 전업주부만이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세 집단은 그 보다 훨씬 짧은 하루 평균 2시간 반에서 3시간정도에 불과해 육체적 노동력의 재생산에 만 치중하는 열악한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토요일에는 남편의 경우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 생리적시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시간도 다소 확보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든 것은 토요일이라는 요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는 수입노동시간의 감소와 가사노동시간의 증가가 서로 상쇄되어 토요일에도 여전히 10시간 정도를 노동시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일에는 남편의 장시간의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가리워졌던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보다 1시간 남짓 증가할 뿐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한주간의 쌓인 피로를 풀고 다음 한주간을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재충전하는 휴일인 일요일에는 남편의 경우 하루의 절반정도에 가까운 생리적 시간과 9시간 내외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사노동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의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5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노동시간 즉 가사노동시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부인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재생산의 시간을 남편만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와의 균형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과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양식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1980년에는 11시간(임정빈, 1981)을 넘어서던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현재에는 많이 감소한 결과 다른 집단에 비해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남편이나 사회적 노동과 가정내 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리적 시간만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을 뿐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문화적 시간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서 노동력의 재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3.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본 부부간의 남녀평등과 가정책임의 공유

생활시간구조를 통해 부부간의 가정책임의 공유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여전히 장시간으로 나타나 전체 노동시간을 통해 볼 때 남편의 가정책임의 부담정도가 부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가정 가정의 경우 이러한 가정책임은 남녀의 성역할관념에 따른 성별분담에 의한 것으로 남녀평등의 달성을 위한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시간의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평일에는 전체 노동시간이 비슷한 편이나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2시간 반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가정책임의 부담정도가 남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부의 사회적 노동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깊이 내재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사회적노동인 가사노동도 1차적 책임을 져야하는 주부의 '이중부담'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러한 주부의 역할과 중현상이 평일의 경우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워낙 장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취업주부의 사회적 노동시간이 2시간에서 13시간에 걸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시간제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평균 6시간 이하의 수입노동시간을 갖는 취업주부가 전체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시간이 남편에 못지않은 취업주부의 노동의 이중부담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취업주부를 수입노동시간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생활시간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전일제 취업주부의 총노동시간이 평일에는 13시간 3분, 토요일에는 11시간 2분, 일요일에는 6시간 11분으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의 총노동시간보다 평일에조차도 1시간 30분이상 긴 것으로 나타나 노동의 이중부담정

〈표 3〉 노동시간에 따른 취업주부의 생활시간구조

(시간제:25명, 전일제:76명) 단위:시간분

구분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생리적 시간	10.07	9.01	10.17	9.33	11.23	11.31
수입노동시간	5.36	10.00	2.57	6.53	.04	.54
가사노동시간	4.45	3.03	5.55	4.09	5.31	5.17
전체 노동시간	10.21	13.03	8.52	11.02	5.35	6.11
사회문화적시간	3.31	1.56	4.51	3.35	7.02	6.18

도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일제 취업주부의 이러한 과중한 노동부담은 다른 생활시간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육체적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확보에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와 함께 정신적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전일제 취업주부의 생활의 피폐화정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부부의 노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동의 공동화 뿐만 아니라 생활주체로서의 자립을 위한 사적 노동의 공동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와 시간일지표를 사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며 남편이 직업을 가진 유사녀부부 227쌍을 3일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 조사한 자료를 빈도분포와 평균으로 분석함으로써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고,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문제와 사회적 노동과 가정책임의 공유문제와 관련시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평일의 경우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편은 10시간 이상의 수입노동을 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8시간 20분의 가사노동을, 취업주부의 경우 8시간 20분의 수입노동과 함께 3시간 28분의 가사노동을 합하여 11시간 48분이나 노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시간노동의 결과는 짧은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연결되어 전업주부만이 약 6시간의 여가를 갖고 남편들과 취업주부는 거의 3시간 이하의 여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의 경우도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남편들은 7시간 반 이상을 수입노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노동에 1시간 미만의 가사노동을 더하여 총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고 있다. 취업주부는 5시간 반 정도의 수입노동시간과 4시간 반 정도의 가사노동시간을 합하여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는 7시간 반 정도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토요일의 사회문화적 시간은 평일에 비해 증가하였고 집단간 차이도 감소하였으나 취업주부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4시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도 남편의 경우 평균 수입노동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일이나 토요일보다는 많은 가사노동시간을 보인다. 부인의 경우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5시간 반 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는 남편들의 사회문화적 시간이 약 9시간으로 많은 반면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 남편보다 짧게 나타났고,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가장 적은 6시간 반 정도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를 노동력 재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 검토해 보면 남편의 경우 장시간의 수입노동 때문에, 취업주부의 경우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많고,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문화적 시

간이 적으며, 오직 비취업주부만이 노동력의 소비와 재생산 시간이 어느정도 균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장시간 수입노동시간과 성역할고정관념의 결과 남편들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시간이 적으며, 취업주부의 경우 이중역할로 인한 장시간노동의 문제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의 장시간노동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단축을 검토해야만 하겠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노동은 국제적 비교에서도 밝혀진 점으로서 이는 노동자의 생활의 질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사회를 향한 현시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긴 이동시간도 근로자의 사회문화적 시간을 침식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통정책 또한 긴요한 점이다.

특히 취업주부의 장시간노동문제는 남성근로자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일반의 장시간 근로문제와 더불어 고정된 성역할관념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문제이다. 자립적인 생활기반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인이 취업한 경우 남편이 가사를 분담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함께 근무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자녀출산 후의 부모휴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남녀노동자의 생활의 질 향상 및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여가활동을 보다 시간집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장내에서 여가활동공간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효과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여가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

전업주부는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문화적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부의 여가활동은 대중매체와의 접촉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임

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여가시간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최근 각급의 행정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 1) 강신주, 서영숙, 최보가, 생활시간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1968, 133-142.
- 2)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 연보, 1989.
- 3) 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 4) 김외숙, 시간사용연구에 관한 분석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
- 5) 동아일보, 1993년 9월 9일자.
- 6) 서울대신문연구소, 1990년도 국민생활시간조사, 한국방송공사, 1991.
- 7) 안영희, 주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논문집, 16(2), 1977.
- 8)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984.
- 9) 임정빈,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1981.
- 10) 임정빈·임혜경,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0(4), 1992, 261-278.
- 11) 조희금, 생산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 12) 한경미,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광주시 주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3) ———,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4) Juster, F.T., & Stafford, F.P., Introduction and Overview, 'Time, Goods, Well-Be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85.
- 15) Nichols, S.Y., Human Resources and Household Time Allocation; A long term view, in Deacon & Huffman(eds), *Human Resources Research*

- 1887-1987 *Proceedings*, Iowa College of home Economics, Iowa State University.
- 16) Hill, M.S., Patterns of Time Use, Juster, F.T., & Stafford, F.P., (ed), 'Time, Goods, Well-Being' ISR, 1985, 133-166.
- 17) Robinson, J. P., How American Use Time, New York : Prager Publisher, 1977.
- 18) Stafford, K. An economic analysis of employed wives' time allocation decision.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 1978.
- 19) Szalai, A., (ed)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ulations in Twelve Countries, The Hague : Mouton, 1972.
- 20) Waker, K.E., M.F. Woods,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AHEA, 1976.
- 21) 伊藤セツ, 序章-現代における家庭經營學的 生活時間研究の意義,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1983.
- 22) 伊藤セツ, 大竹美登利, 第 1 章 生活時間調査, 研究の系譜と動向,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1983.
- 23) 森ます美, 第 4 章 妻の就業と夫妻の生活時間,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1983.
- 24) 伊藤セツ 外, 第 1 章 調査論と調査対象,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1989.
- 25) 大竹美登利, 第 2 章 夫と妻の生活時間構造,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様式, 東京, 光生館, 1989.